**“부(교역)자 리더쉽”**

“꼰대,” 기성세대 또는 선생 등을 가르키는 이 은밀한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상식적인 시선에서 어른 또는 선생은 긍정적인 어감을 풍기는 데 반해, 꼰대는 어감 자체도 부정적이지만, 그 뜻이 무조건적 복종, 권위주의, 서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등을 강요하는 무례하고 불통인 기성세대를 가르킨다는 데서 누구라도 눈쌀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 유행하던 당시나 지금도 내 바램 중의 하나는 이런 꼰대로 나이 들어 가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되고 싶은 어른은 “Man of Integrity” 인데, 이는 우리말로 단순히 정직한 또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기엔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넘어,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온전하며, 특별히 성경적 진리를 알고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나 할까… 인간적 관점에서 다소 이상적이긴 하지만, 완벽한 man of integrity 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챤으로써 내가 지향하는 어른의 모습은 이러한 man of integrity 라고 할 수 있다.

진 재혁 목사님의 “부교역자 리더쉽”은 내가 지양하고자 했던 꼰대와 내가 지향하는 man of integrity의 모습들이 리더쉽이라는 좀더 학문적인 언아와 실제적인 개념으로 구체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으로서의 리더쉽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p. 50). 특별히 교회와 한국 사회라는 두가지의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의 부교역자의 실상과 역할을 정직하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그들이 상위의 또는 담임목사로써 성경적인 영향적을 가진 리더쉽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또한 저자는 한국 교회에서의 여성 부교역자의 실상과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인턴으로써 여성 부교역자에 속하는 나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 준다. 일반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칫 여성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자기 발전과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일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은사가 있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인지할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해 부교역자가 가진 특권이 다양함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개자로써의 특권 그리고 숙성된 비전의 시간에 대한 특권이 개인적으로 크게 다가왔다. 부교역자는 영적, 육적, 그리고 정서적인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관계속에서 겸손, 인내,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위치임을 보여 준다. 특별히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끼인 자로써 부교역자는 지혜로운 중재자로써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을 이해시켜 준다. 이 부분은 실로 도전적일 수 있지만, 특별히 부교역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중간자의 과정을 통해 부교역자는 양쪽 모두를 객관적이고 심도깊게 이해할 수 있고, 그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중재자가 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리더쉽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부교역자의 시간이 주는 특권은 자신의 비전을 숙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역자의 성향과 전문성 그리고 가치에 따라 비전은 다소 소박할 수도 있고 때론 너무 거대하여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박하든 거대하든 비전을 가진 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특권이고 책임일 수 있다. 특별히 리더로써 부교역자 과정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숙성시키는 이 특권을 누리고 현재의 책임에 충실한 부교역자가 되길 기도해 본다.